데스크 시각

‘푸른 옷’에 실려 간 억울한 죽음 없어야

송기동
예향부장·편집국 부국장

“석식 후 개울에서 혼자 목욕하다가 쇼크로 인한 기도 폐쇄로 사망했다.”

1987년 7월, 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갑자기 사망한 L상병의 죽음을 ‘사고사’라고 했다. 부검때 군의관은 고인의 가슴께에 있는 멍을 보고도 ‘심장마비’로 결론 냈고, 해당 부대는 상부에 ‘기도 이물 폐쇄에 의한 질식사’로 보고했다. 아들을 잃은 유족들은 군의 거짓말을 믿고 분루(憤淚)를 삼켜야 했다. 하지만 30여년 뒤 군(軍)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 ‘구타에 의한 타살’로 밝혀졌다. 한 선임병이 후임병들을 집합시킨 후 ‘얼차려’를 주며 L상병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게 원인이었다. 위원회에 L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규명해 달라고 진정한 이는 고인의 동료 부대원 이었다.

멈춰버린 군 의문사 진상 규명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에서 동원한 1공수 병력이 육군본부와 국방부를 점령하기 위해 몰려왔다. 국방부 청사내 B2 벙커를 지키던 초병은 무장해제 하려는 반란군들에게 “우리 중대장의 지시없이는 절대 총을 줄 수 없다”며 저항하다 사살됐다. 초병은 영암 출신으로 광주에서 고교·대학을 다닌 고(故) 정선엽 병장이다. 반란군은 그의 죽음을 ‘계엄군 증가 인원과의 오인에 의한 총기사고’로 조작했다. 그의 의로운 죽음은 묻혀져 있었다. 고교 친구들이 그를 기리며 모교 교정에 소나무를 심었다. 2022년 4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국가는 마땅히 사망 구분을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해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그에 합당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통령 직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최근 조사 활동을 종료했다. 2018년 9월 출범한지 꼭 5년만이다. 1948년 11월 이후 발생한 군내 사망사고 가운데 의문사가 제기된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됐다.

위원회는 접수된 진정사건 총 1787건 가운데 1134건의 진상을 규명했다. 이 가운데 자해사망으로 규명된 사건이 943건, 사고사 314건, 병사(病死) 325건, 타살 59건으로 밝혀졌다. 특히 위원회 조사결과에 따라 12·12 반란군과 대치하다 목숨을 잃은 정 병장 사례처럼 ‘순직’에서 ‘전사’로 변경되기도 했다. 일반 병사 사망사건 1362건 중 이병(399건)과 일병(462건) 계급의 비중이 높았다. 사례집에 실린 사망사고는 공통적으로 구타와 빈인간적인 대우 등에서 비롯됐는데 군 지휘관들은 이를 자살·병사 등 개인의 잘못으로 은폐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그러나 아직도 군에서 의문사해 경위를 살펴봐야 할 사례가 3만여 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 점에서 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이 절실하다. 그렇지만 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관련 법 개정안은 안타깝게도 국회 상임위를 넘지 못했다.

위원회는 5년간의 ‘종합활동 보고서’와 함께 부록으로 군사망사고 피해 사례집을 냈다. ‘나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제목을 붙인 피해 사례집에는 모두 27건의 사례가 실려 있다. 아! 그런데 사례집을 몇 페이지 넘기자마자 기자의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도 가팔라졌다. 구타와 폭언, 얼차려 등 1980년대 군에서 직·간접적으로 겪은 트라우마가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군 복무시절 가장 선임인 ‘왕고참’의 성향에 따라 내무반 분위기가 천당과 지옥 차이만큼 달라짐은 누구나 절감했을 것이다.

은폐된 진실 밝히고 명예 되찾아야

사례집에 나온 젊은 군인들은 어쩌면 옷깃이라도 스쳤을지도 모르는 친구 또는 선·후배나 다름없는 대한민국의 평범한 청년들이었다.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입대한 그들이 왜 억울한 죽음을 맞아야 하는가. 2016년 3월, 입대한지 7개월밖에 되지 않은 한 청년은 혈액암이 의심됨에도 군 병원에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사후에 보인 국가보훈처와 국방부의 대처는 유가족들을 절망케 했다. 국가보훈처는 ‘재해 사망 군경’으로 판단해 유족의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거부했고, 국방부는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1사단 채 일병 사망처럼 현재도 군 사망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무기는 최첨단 장비로 발달하고 있는데도 이를 운용하는 군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더 이상 ‘푸른 옷’에 실려가는 청년들의 억울한 죽음은 없어야 하고, 그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한다. 국가는 부모에게 참척(慘慽·자손이 부모나 조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의 쓰라림을 안기지 말라.

은펜칼럼

내 마음속 정류장

고성혁
시인

해거름 억새가 흔들린다. 낙엽 끝에 달린 붉은 감 몇 알이 산 그리메를 적시고 마지막 수확을 거두는 먼 들판의 트랙터 소리 적막을 깨운다. 발자국 소리에 놀라 푸드덕 가을 물을 박차고 날아오르는 새들. 서편 하늘이 붉디 붉다. 문득 마음 한 켠에 반짝 켜지는 등불 하나. 아, 가을이다. 가을이 왔다.

숱한 사연과 곡절 속에서도 나를 위해 평생 희생하고 가신 어머니와, 먹을거리를 위해 남의집살이를 떠났던 누님의 뒷모습. 바닷물에 빠져 창졸간에 목숨이 다한 내 머리칼을 잡아끌어 올렸던 형님과 납부금을 대납해 주셨던 중2 담임 선생님. 키가 훌쩍 컸던 그분은 자주 앞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셨다. 또 있다. 광화문 감리교 빌딩 세차장 시절 긴 낭하 끝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있던 내게 뜨거운 라면냄비를 건네던 이름마저 잊은 경상도 아가씨. 그녀의 모습이 까무룩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다. 문드러진 내 동심을 소생시켜 선의 본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신 정채봉 선생님과 평생 병고에 시달리면서도 작은 마을 교회의 종지기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신 권정생 선생님. 고통받는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 이태석 신부님. 책에서, TV에서 만난 어른들이다.

지난 여름 긴 장마 속에서 또 한 분의 어른을 만났다. 김장하 선생님. 그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뭉클해 한참이나 멍해 있었다. 경남 진주 등지에서 육십 년 동안 한약방을 운영해 번 돈으로 고등학교를 설립해 국가에 헌납하신 분. 수많은 젊은이에게 장학금을 주었으며, 지역신문과 문화예술단체, 환경운동연합과 가정법률상담소 등 진주의 시민단체를 꾸준히 보살폈던 어른. 하지만 도운 일을 얘기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인터뷰하지 않았으니 그가 한 일을 아무도 몰랐다. 인터뷰어를 응시한 채 입을 꾹 다물고 대꾸하지 않는 그분의 모습을 보자 감동이 몰아쳤다. 물신 속, 자기 자랑이 일상화된 오늘날 삶의 방식 때문이었을 것이다. 무주상보시(無住相布施). 내 것을 누구에게 주었다는 생각마저 버리라는 말. 그런 말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건만 그걸 평생 실천한 분이라니. 진심을 다해 누굴 도운 적이 없었던 나를 떠올렸다. 아, 욕심을 따라 껄떡거리던 정신머리. 방정맞기만 했던 몸뚱이….

일찍이 유한한 존재로서의 삶을 깨닫고 베풂의 기억마저 털어낸 어른 김장하. 그분의 삶을 오래 되작이다 우리 광주를 생각했다. 우리 곁에도 이런 분이 있지 않을까. 우리 주변에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곪아 터진 지역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 텐데. 문득 지난 8월 광주일보에 기고한 박석무 선생의 글 ‘재물을 보존하며 아름답게 사는 삶’을 회상했다. 선생께서도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신 모양이었다. 다행히 우리 광주에도 모든 재산을 어렵고 가난한 이웃이나 학비가 없는 학생들에게 베푼 어른이 계신다고 했다. 깊은 산속에서 옹달샘을 만난 느낌이 이럴까. 이 가을이 가기 전 진주MBC처럼 어느 언론이 나서 이분의 삶을 소개해주면 좋겠다.

몸피를 줄여야만 겨울을 나는 낙엽의 신비. 김장하 어른은, 그런 분들은 무엇을 버리며 자기 삶을 간추렸을까. 하늘의 그물은 성긴 것 같지만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 어김없이 누군가에게는 마지막이 될 이 가을. 그 누군가가 나일 수도 있음에 숲 그늘 곤줄박이에게 눈인사를 보내고 창밖 흐드러진 국화에게도 손을 흔든다. 작별이 서러워 하늘 한 번 쳐다보고 청춘이 그리워 눈가를 훔친다. 모든 기쁨은 살아서의 일이고 모든 슬픔도 살아서의 일. 미욱한 이 가을의 경계를 지나면 혹여 온 생의 기억이 흰 눈으로 변해 내 지나온 세상의 잘못을 덮을 수 있을까. 가을이라며 먼저 가는 이여, 가는 길에 억새 흰 그림자 온 강에 흩뿌려 가을이 왜 가을인가를 가르쳐주시길. 가는 것이 아주 가는 게 아니고 오는 것도 그저 오는 게 아니라는 말이 민들레 씨앗처럼 바람에 날리는 이 계절, 부디 우리의 사랑도 우리의 우정도 떠내려가는 물결이라는 걸 알려주시길.

돌아보니 가을 버스가 산모롱이를 휘돌고 있다. 덩달아 내 마음속 정류장에서도 버스 하나 시동을 건다. 나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숲 그림자에 어른거린다. 나와 스친 사람, 인연 안의 모든 사람이 고맙다.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야 하는 가을, 삶의 처음과 끝을 생각하게 하는, 자신의 문은 닫고 타인을 향한 문을 열게 하는 가을이 왔다.

기 고

심신이 피로할 땐 말도 줄여야 한다

박진영
공감커뮤니케이션연구소 대표

“애인에게 전 여자친구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두 번째는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한 20대 회사원이 내게 들려준 경험담이다. 술에 취해 그랬다고 한다. 그야말로 ‘술이 웬수’가 아닐 수 없다.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치고 취중 실언을 한번도 안 한 사람은 드물 것이다.

유명인사가 취중에 한 실언 한마디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일이 간혹 일어난다. 2010년 10월 한 시의원이 일본 가나자와시를 방문해 만찬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건배사를 하다 ‘가미가제 만세’를 외쳐 큰 물의를 빚었다. 가미가제는 일본 군국주의 시절 허름한 비행기를 타고 적의 군함에 돌진하던 자살 특공대다. 2016년 한 신문사 기자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라고 말한 것이 드러나 세상을 흔들어놓은 교육부 고위 관리도 “취중에 나온 실언”이라고 했다.

한국인은 비교적 술에 관대한 편이다. 특히 남성들 사이에선 ‘술자리에서 일어난 일은 술자리에서 끝낸다’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눈감아주는 데도 한도가 있다.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공직자의 취중 실언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술이 아니더라도 실언의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 있다. 워싱턴포스트 과학담당 기자인 샹커 베단텀은 ‘숨겨진 뇌’(hidden brain)라는 말을 만들었다. 잠재 의식처럼 우리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를 조종하고 있는 다양한 영향력을 말한다.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야 할 때, 의식적인 뇌와 숨겨진 뇌는 마주앉아 대화를 나눈다. 매번 의식적인 뇌가 논쟁에서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따르고 규범을 지키고 괜찮은 사람이란 평판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의식적인 뇌는 어떤 압박감 아래서 통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그럴 때 숨겨진 뇌가 작용해 평소 숨기고 있던 믿음과 태도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 그 숨기고 있던 믿음과 태도가 편견일 때는 지탄을 받게 된다.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어리석고 황당한 편견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은 숨겨진 뇌의 작용 때문이다.

2022년 4월12일 국제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 유럽 예선 D조 8차전에서 북아일랜드와 잉글랜드 대표팀이 맞붙었다. 북아일랜드가 0대 5로 크게 졌다. 케니 실스 북아일랜드 여자대표팀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다.

“여자축구 경기를 보면 실점한 팀은 아주 짧은 시간 뒤 추가 실점하곤 한다. 여자축구 경기가 다 그렇다. 왜냐하면 소녀와 여자들은 남자보다 더 감정적이기 때문이다.”

케니 실스 감독의 발언에 비판이 쏟아졌다. 자신의 팀이 한 번 실점하면 빠른 속도로 조직력이 무너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는데 여성 차별적인 관념을 드러낸 게 문제였다. 북아일랜드는 선취골을 내준 뒤 와르르 무너졌다. 앞서 오스트리아와 경기에서도 후반전에 3골을 내주며 1대 3으로 졌다. 이런 패배가 이어지자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숨겨진 뇌’가 작용해 ‘여성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 버린 사례라 할 수 있다. 우리는 누구나 무의식 속에 편견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서울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이 동료 여직원을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서울시 의원이 “좋아하는 걸 안받아주니까 폭력적인 대응을 한 것 같다”고 말해 물의를 빚은 것도 비슷한 사례다.

나이를 먹고 뇌가 퇴화하면 우리의 통제력도 약해진다. 그러면 의식적인 뇌가 제어하고 있던 편견을 밖으로 드러내기 쉽다. 오스트레일리아 퀸즐랜드 대학교의 윌리엄 폰 히펠의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통제하는 능력이 떨어질 때 편견을 드러낼 가능성이 커진다. 노인 환자들은 피곤해지는 오후에 ‘이유 없이 언쟁’을 벌일 가능성이 아침보다 세 배나 높았다고 한다. 노인시설에는 언제든 당을 보충할 수 있게 사탕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뇌는 인간 신체기관 가운데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기관이다. 전체 에너지 소모의 약 20%에서 2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 있거나 몸에 피로가 많이 쌓인 상황에서도 의식적인 뇌는 제 기능을 다 못할 수 있다. 경기에 패배한 운동선수들이 간혹 어이없는 말과 행동으로 지탄을 받는 것을 반면교사로 삼으면 좋다. 그러니 심신이 피로할 때도 말을 줄여야 한다.

社說

합의안 도출 풍암호수…명품 공원으로 화답하길

‘원형 보존’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광주 풍암호수 수질 개선 사업이 1년 3개월만에 합의안을 도출했다. 광주시와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는 그제 광주시청에서 전체회의를 갖고 수질 개선 방식에 최종 합의했다.

합의안의 골자는 수심을 낮추되 수질 개선을 위해 지하수를 비롯해 외부의 맑은 물을 유입하는 자연정화 방식을 선택했다는 점이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담수량은 현재 45만 t 에서 15만 t 으로 줄이고 평균 6m인 수심을 1.5m로 낮추되 호수 바닥에 강자갈을 깔고 맑은 물 유입을 통해 3급수 수준의 수질을 상시 유지하기로 했다. 주민협의체가 사업자측의 계획을 큰 틀에서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법을 찾았다.

반면 사업자측은 주민협의체가 요구한 호수의 면적을 최대한 현행 크기로 유지하고 장미공원을 호수공원 인근으로 확장 이전해 달라는 안과 함께 호수 주변에 데크 길과 맨발 황톳길 등 산책로 조성을 받아들이면서 기나긴 논란을 매듭지었다.

최종 합의안은 오는 31일 전체 주민 동의를 얻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풍암호수는 도심에 흔하지 않은 규모인데도 여름이면 ‘녹차 라떼’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녹조현상으로 수질 개선 지적을 받아왔다. 마침 민간공원특례사업지로 지정돼 수질 개선 기회를 맞았지만 수심을 낮춰 돈을 덜 들이려는 사업자와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환경단체 사이에 갈등을 빚어왔다.

오랜 갈등끝에 합의안을 도출한 만큼 소모적인 논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체 주민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후속 작업이 중요하다. 주민 동의가 이뤄지면 중앙공원 1지구 사업도 탄력을 받게 된다. 사업자와 광주시는 국내를 대표하는 명품 호수 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양보에 화답해야 할것이다.

소 럼피스킨병 지역 확산 방지에 만전 기해야

그제 해남군 현산면 한 축사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전남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시료를 1차 조사한 결과 다행스럽게 단순 피부병으로 나타났다.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축산 농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럼피스킨병은 구제역과 달리 공기로 전염되지 않지만 전파력이 강해 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이 병에 걸린 소는 고열과 피부결절(단단한 혹)이 발생하면서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불임 등 증세를 동반한다.

소 럼피스킨병은 지난 20일 충남 서산시 축산 농장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충남 당진시, 경기도 수원시, 인천시 강화군, 강원도 양구군 등지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만일 전국 최대 소 사육 지역인 전남에서 이 병이 발병한다면 피해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도내 소 사육 농가는 1만 8000가구에 달한다.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해당 축산 농가 주변 10㎞ 이내에 670여 농가가 2만 7000두의 한우와 젖소를 사육하고 있다.

지자체와 농협, 축산 농가들은 전례없는 럼피스킨병 발병을 막기 위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농협 공동방제단이 방역 차량을 이용해 축사를 돌며 소독을 실시하고, 축산 농가 또한 하루를 소독으로 시작해 소독으로 끝마칠 정도로 방역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소 질병 확산으로 자식 같은 소를 살처분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우려한다.

전남도와 시군 지자체, 축산 농가는 소 럼피스킨병 유입과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 소독 작업과 함께 축사 예찰 등 어느 하나 소홀하게 다룰 수 없다. 새로운 가축 병이 발생하는 상황을 감안해 ‘동물 복지’ 개념을 적용한 축산에도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

無等鼓

화약고

전 세계에서 분쟁이나 전쟁 발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비유적으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한다. 유럽의 화약고는 이미 터진 상황이다. 동유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1년 8개월째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데 쉽사리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 사이의 전쟁이 중동 화약고로 확전할 위기에 처했다. 모든 아랍국가와 적대 관계인 이스라엘이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에서 시리아, 레바논과의 교전 상황도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레바논의 친(親) 이란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군사 충돌이 갈수록 격화되면서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세계의 화약고로 꼽히는 배경에는 대부분 국경선과 종교적 문제, 그리고 민족적 갈등이 있다. 국가의 정치 성향과 강성 지도자들로 인한 국가 간 대립 관계가 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외교적인 해결 없이 ‘강 대 강’ 대치로 치닫다가 결국은 극단적 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 우파 정부의 팔레스타인 강경책이 하마스의 군사적 도발을 자극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이처럼 국가 간 패권 싸움과 정치권의 강경 정책 때문에 죄 없고 힘없는 민간인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하루아침에 가족들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우크라이나 민간인만 9000명 넘게 숨지고 1만 6000여 명이 다친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자엔 어린이 500명도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무력 충돌이 발발한 이후 양측 사망자만 5000명을 넘어섰다. 팔레스타인 측 사망자가 3800명, 이스라엘 측 사망자는 1400명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반도도 ‘동아시아의 화약고’로 꼽히는 곳이다. 북한과의 휴전 상태가 70년째 이어지고 있는 데다 북한의 핵 위협과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선 한·미·일 협력, 중국과 대만 간 갈등 등 동아시아의 복합적인 정치외교 지형에 화약고를 안고 있는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니다. 대북 관계나 중국과의 강 대 강 외교에서 벗어나 실리적인 외교 관계 복원이 절실한 때다.

/최권일 정치부부국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